



회계, 경영의 나침반

십여 년 전,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의 경영자를 만난 일이 있다. 당시 그는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잘 만들고 잘 팔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직원 수가 30명을 넘기고 나니 관리에 한계를 느낀다”는 말을 했다. 그가 말한 관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회계도 그중의 한 부분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회계기능 과소평가의 금줄

많은 벤처기업들이 기술에서 출발해 영업으로 성장한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하지만, 영업이라는 현실에 부딪쳐 시간을 쫓기다 보니 소위 말하는 관리, 그 중에서도 회계는 경영자의 관심범위 내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회계는 필수과목만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주로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한 벤처기업인들에게 회계가 남의 나라 말과 같이 느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인들이 회계를 모르고는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일까? 회계를 잘 모르는 경영자들은 회계를 기업의 경리부서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구멍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그날 판 물건과 들어온 돈을 맞추고, 돈이 얼마 남아서 내일 물건을 사고 집에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회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에서 회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계부서의 역할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이익을 계산하거나 간혹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할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능만을 기대한다면 회계를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정확한 회계는 기업의 자산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또는 회계처리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세무상

그리고 금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부문은 차치하고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회계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왜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정확한 회계는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내일의 경영방향까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이익을 계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부른다.

재무제표를 조금만 재조정해 보면 회계상이익뿐 아니라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익은 났는데 현금이 없다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 장부를 통해서 공정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깊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공정의 수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보인다. 수율이 떨어진 것을 파악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고 쳐나감으로써 당연히 기업의 상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회계정보를 관리에 잘 활용하는 기업은 회계정보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자신이 값있게 활용해야 할 소중한 정보자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몇 개의 사업부를 가진 기업이 있었다. 회계를 조금 아는 경영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때마다 경비들이 사업부, 저 사업부에 당시의 필요에 따라 부담시켰다. 몇 년이 지난 후 회사가 사업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철수하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경영자는 자기의 업무처리 방식을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한다. 그동안 각 사업부의 이익과 경영활동이 어떤 추세를 보였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회계정보를 경영의 나침반으로 값있게 활용하는 벤처기업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